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구조 모형 구축

이하나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Korea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nce

Ha-na Lee

Department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2016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ps)의 자료 중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본인 1881명 중 응답률이 불충분한 101명을 제외한 1780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와 Amos Program 2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 검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평가는 χ^2 통계량, GFI, AGFI, CFI, IFI, RMSEA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우수한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며,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혼합형 중재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unified structural model that defines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hat affect Multi Cultural Acceptance (MCA) for adolescents. This study was performed using the dataset from the 2016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PS). We analyzed the survey result from the dataset at the 0.05 significance level using the SPSS and AMOS version 22 program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sev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participants by a descriptive analysis method that adopted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 method to verify the fitness of the hypothetical model and the hypotheses therein. In addition, we applied the χ^2 -test, GFI, AGFI, CFI, IFI, and RMSEA to show the fitness level of our structural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our proposed structural model demonstrated a fine fitness level. We found that key factors that affect MCA for adolescents were ego-resilience, peer relationships, and sense of community. Overall, the results of our study indicate that combinational intervention is needed to help adolescents lift their ego-resilience, as well as to develop peer relationships and a sense of community.

Keywords : Adolescent, Culture, Ego Resilience, Relationship, Structural Model

1. 서론

외국인 유학생 및 조선족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1].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영입,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다문화 가구는 총 278,036가구로 전체 가구 중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으로 수행되었음(2017R1C1B5076573)

*Corresponding Author : Ha-Na Lee (Dongyang Univ.)

Tel: +82-54-630-0209 email: lhn0407@dyu.ac.kr

Received December 18, 2017

Revised (1st January 8, 2018, 2nd January 23,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만 9세부터 24세의 비율이 2012년 조사 대비 24% 증가하여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초기의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다[2].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사회로 하여금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아닌, 공존과 조화를 위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3]. 특히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는 국가적 차원의 상호 공존을 위해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4,5].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Management Development)의 5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에서 매우 낮은 순위인 56위를 나타내었다[6]. 이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인지가 형성될 시기이며, 발달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관점으로 사회화 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국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시키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의 상호공존을 위해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청소년기에 요구되어지는 교육적·사회적 과제라 볼 수 있다[3,7].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다문화 가족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4만명 이상으로 보고되어지며[8], 현재는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의 자녀들이 청소년으로서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고한다[8,9].

즉 다문화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친구로서, 공동체로서 어우러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이라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태도 변화는 현재 관계뿐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의 관계정립을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에 수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의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어진다[10].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타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외부 환경에 대

한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으면서 다양한 상황에 잘 적응한다고 말한다[11]. 특히 이러한 특성은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다문화 수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1,12]. 또래관계 또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13], 이는 다양한 학교 환경을 자신에 맞게 수용하고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13].

한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동체 의식은 또래집단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동질감 및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 존중하는 능력을 높인다고 하였고[14],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특성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수용하는데 있어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15]. 이외에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보고하였다[16,17].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논문은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18].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적 환경을 수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하여 이를 구조화하고,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 의해 확인된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요인들을 포함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자료를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 2)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 3)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인과관계 및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7차년도(2016년)[19]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자아탄력성, 공동체 의식, 또래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자료를 사용하였다[19].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2016년 7차년도의 표본으로 추출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1881명이며, 이들 중 결측값이 포함된 응답률이 불충분한 대상자와 불성실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자 101명을 제외하여 1780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1) 다문화 수용성 도구

본 연구의 다문화 수용성은 Yang과 Jung[20]이 제작한 다문화 수용성 도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19]에 의해 수정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다문화 수용성 도구의 문항들로는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있어 분석을 위하여 역채점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수용성 도구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 공동체 의식 도구

본 연구의 공동체 의식은 Kwon[21]이 제작한 공동체 의식 도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19]에 의해 수정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공동체 의식 도구의 문항들로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있어 분석을 위하여 역채점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동체 의식 도구의 Cronbach's $\alpha = .72$ 이었다.

3) 자아탄력성 도구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an[22]이 제작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Yu와 Sim[23]이 번역한 도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19]에 의해 수정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자아탄력성 도구의 문항들로는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어 분석을 위하여 역채점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 도구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4) 또래관계 도구

본 연구의 또래관계는 Armsden과 Greenberg[24]가 제작한 또래애착 도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19]에 의해 수정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또래애착 도구의 문항들로는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어 분석을 위하여 역채점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 도구의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7차(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19]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원시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절차에 따라 제공 받았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발달해가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개인발달 영역과 환경발달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발달 영역에서는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환경 발달 영역에서는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7차(2016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에서 12월까지로 16개 시·도를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의 지역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집락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면접조사 후 조사 사례폴 지급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2와 Amos Program 2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 2) 연구도구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SPSS 22 Program의 Pearson's correlati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 4)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검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평가는 카이제곱 통계량, GFI, AGFI, CFI, IFI, RMR, RMSEA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875명(49.2%), 여자가 905명(50.8%)이었다. 종교를 가진 경우는 479명(26.9%), 가지지 않는 경우는 1301명(73.1%)이었으며, 경제 수준은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1127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로 전국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청소년의 현 살고 있는 대상 지역은 경기도 274명(15.4%), 경상도 252명(14.1%), 전라도 194명(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80)

| Characteristics | Items | n | % |
|-----------------|----------------|------|------|
| Gender | Male | 875 | 49.2 |
| | Female | 905 | 50.8 |
| Religion | Religion | 479 | 26.9 |
| | No Religion | 1301 | 73.1 |
| Economic status | Poor | 325 | 18.4 |
| | Moderate | 1127 | 63.3 |
| | Good | 328 | 18.3 |
| Location | Seoul | 161 | 9.0 |
| | Busan | 109 | 6.1 |
| | Daegu | 126 | 7.1 |
| | Inchon | 108 | 6.1 |
| | Gwangju | 69 | 3.9 |
| | Daejeon | 82 | 4.6 |
| | Ulsan | 81 | 4.6 |
| | Gyeonggi-do | 274 | 15.4 |
| | Gangwon-do | 54 | 3.0 |
| | Chungcheong-do | 187 | 10.6 |
| | Jeolla-do | 194 | 10.9 |
| | Gyeongsang-do | 252 | 14.1 |
| | Jeju-do | 83 | 4.7 |
| All | | 1780 | |

3.2 측정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는 표본의 정규성 평가를 위해 평균, 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Table 2).

서술적 통계에서는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보고, 일변량 첨도의 절대값이 8.0-20.0까지를 극단적인 첨도라고 본다[16]. 본 연구의 분석결과 극단적인 왜도, 첨도를 나타내는 값이 없어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연구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

(N=1780)

| Variables | Mean±SD | Skewness | Kurtosis |
|---------------------------|-----------|----------|----------|
| Multi-cultural Acceptance | 12.4±2.31 | -.106 | -.196 |
| Sense of community | 11.7±1.99 | .017 | .457 |
| Peer relationship | 28.2±3.79 | .156 | -.013 |
| Ego-Resilience | 39.8±5.43 | .058 | .707 |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

(N=1780)

| | Ego-Resilience | Peer relationship | Sense of community | Multi-cultural Acceptance |
|---------------------------|----------------|-------------------|--------------------|---------------------------|
| Ego-Resilience | 1 | | | |
| Peer relationship | .348** | 1 | | |
| Sense of community | .351** | .266** | 1 | |
| Multi-cultural Acceptance | .277** | .221** | .351** | 1 |

** $p < .01$

Table 4.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C.R, SMC,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Hypothetical Model.

| Endogenous Variables | Exogenous Variables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β) | C.R | p | SMC | Direct effect (p) | Indirect effect (p) | Total effect (p) |
|------------------------------------|--|--|--------|-------|------|-----------------------|-------------------------|----------------------|
| Peer relationship | Ego-Resilience | .337 | 10.640 | <.001 | .113 | .337 (.002) | - | .337 (.002) |
| Sense of community | Ego-Resilience | .417 | 11.376 | <.001 | .174 | .417 (.002) | - | .417 (.002) |
| Multi-cultural Acceptance | Ego-Resilience | .064 | 1.975 | .048 | .216 | .064 (.045) | .216 (.003) | .279 (.002) |
| | Peer relationship | .237 | 8.536 | <.001 | | .237 (.002) | - | .237 (.002) |
| | Sense of community | .327 | 9.742 | <.001 | | .327 (.002) | - | .327 (.002) |
| Fit Indices for Hypothetical Model | $\chi^2=1214.06$, $df=147$, $p=.000$, $GFI=.930$, $AGFI=.909$, $CFI=.907$, $IFI=.907$, $RMSEA=.064$ | | | | | | | |

Abbreviations: C.R.; Critical Ratio,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나타났다(Table 3).

3.3 가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은 일변량 정규성의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25]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선택하였다.

가설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카이제곱검정에서 카이제곱이 1214.06($p < .001$)으로 p 값이 .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에서 기각되었다는 것은 모형을 채택할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니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93, 증분적합지수인 수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90,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90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은 .06으로 나타나 최적모델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에는 총 5개의 경로가 설정되었으며, 5개의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에서 또래관계($\beta = .337$, $p < .001$), 자아탄력성에서 공동체 의식($\beta = .417$, $p < .001$)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자아탄력성에서 또래관계의 설명력 11%, 자아탄력성에서 공동체 의식의 설명력 17%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탄력성($\beta=.064, p=.048$), 또래관계($\beta=.237, p<.001$), 공동체의식($\beta=.327, p<.001$)에서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21%이었다(Table 4).

이상의 외생변수에서 내생변수로의 경로를 바탕으로 한 가설모형의 최종 경로는 Figure 1과 같다.

3.4 가설 모형의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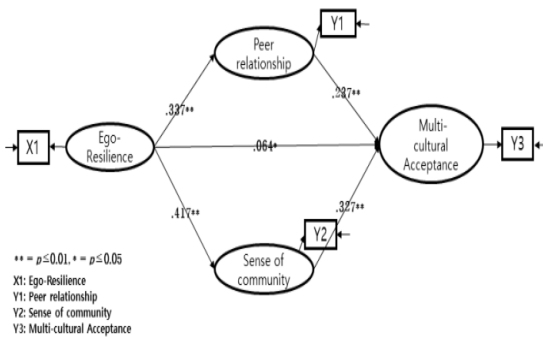


Fig. 1. The hypothetical model of the study.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효과분석을 하였다(Table 4).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으며,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공동체 의식에서도 자아탄력성의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 이었으며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다문화 수용성에 간접효과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다문화 수용성 관련 요인의 직·간접 경로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모형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영향요인을 이용한 구조 모형 또한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았으며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 효과($\beta=.064, p=.045$)와 간접 효과($\beta=.216, p=.003$)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oo[12]와 Park[26]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Kim과 Kim[11]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다양한 외부 환경에 심리적 어려움과 불안을 덜 겪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문화에도 긍정적인 수용성을 일으키게 되는 특성과 관련된다[12]. 즉,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다양한 상황적 사건에 대한 적응능력으로 스트레스, 역경 및 위험한 환경에도 건강하게 적응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27].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특성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를 일으키게 된다[3,27]. 따라서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 탄력성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는 물론,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3].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37, p=.002$), 이러한 결과는 Koo[28]의 연구에서 교우관계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사회성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도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다[13].

한편, Seo, Jo와 Kim[29]의 연구에서는 또래와 함께 문화교류체험을 하는 것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교류체험의 활동을 늘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문화교류체험을 통한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beta=.327$, $p=.002$),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13,29].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의식의 특성 상, 개인으로서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집단 의식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성이 자연적으로 높아져서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13].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나 행동을 이끌며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수용하는데 있어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진다[14,30]. 즉,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섞여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구성원들과 토론하며, 공동의 문제를 던져주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1].

한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구조모형의 설명력이 21%로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또래관계, 자아탄력성, 공동체 의식의 3개의 변수를 채택하였으며, 3개의 변수를 가지고 구조모형을 구축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설명력은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를 찾아내어 다양한 변수들로 구조 모형을 구축할 때 높아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메타분석, 회귀분석 등의 연구방법으로 찾아내어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 구조모형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구조 모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

다. 더불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를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공동체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 의식, 청소년의 심리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혼합형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또래관계,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 의식을 통한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에서는 또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한 홍보나 캠페인 등의 체계적인 방안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육관련 부서, 지역 사회, 국가 전체가 총체적인 접근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어 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자료 중 7차년도인 2016년 표본으로 추출된 중학교 1학년 패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관련 경로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19]. 본 연구의 모형은 우수한 모델 적합도를 나타냄으로써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청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자료 중 2016년 표본 추출된 중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19]. 이에 다양한 학생들의 청소년으로 표본을 확보하여 모형을 검증한 후속 연구를 제언해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며, 또래관

계,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연구를 제언해 본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Justice, *Statistical data on the Korean immigration service and the relevant divisions*, 2016.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2016.
- [3] M. S. Choi, "An Analysis of Differences and Effect Factors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etween Teachers an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s thesis, Dong A University, Pusan, 2013.
- [4] S. H. Park, "A Longitudinal Analysis on Multicultural Perception of Young People Using Latent Growth Model", *Multicultural studies*, vol. 3, no. 2, pp. 99-131, 2014.
- [5] S. K. Un,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Compared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685-695,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10.685>
- [6] Y. S. Choi, D. C. Bae, 2020. *Wealth war in Asia*, Seoul:Knowledge Nomad;2010.
- [7] J. H. Kim, B. Y. Choi, "Mediating Effect of Elementary Students' Multi-cultural 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their Multi-cultural Awareness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vol. 21, no. 8, pp. 613-641, 2014.
- [8] Statistics Korea, *2012 Statistics of Youth*, 2012.
- [9] H. J. Kim, G. T. Park,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Need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Youth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Normal Family Youth",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49, pp. 93-128, 2010.
- [10] Y. J. Park, J. E. Lee, "Factors that have impacts on the multi-culture acceptance of juvenil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vol. 24, pp. 285-310, 2013.
- [11] G. S. Kim, G. H. Kim, "A Study on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9, no. 2, pp. 143-170, 2011.
- [12] J. I. Yoo, "The Influence of Sense of Community and Ego-resilience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Pusan, 2017.
- [13] Y. C. Kim, "Impact of Peer Attachment, Community Spiri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n School Life Adaption in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9, pp. 321-331,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9.321>
- [14] Battistich, V., Solomon, D., D. I. Kim, Watson, M., Schaps, E., "Schools as Communities, Poverty, Levels of Student Populations, and Students' Attitudes, Motives,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vol. 32, no. 3, pp. 627-658, 1995.
DOI: <https://doi.org/10.3102/00028312032003627>
- [15] D. D. Han, K. H. Oh, "The effects of the communal classroom instructional practices and the sense of community on the inhibitory school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s",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Education*, vol. 23, no. 4, pp. 207-235, 2013.
- [16] J. M. Hwang,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olitics of membership",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53, no. 4, pp. 152-184, 2010.
- [17] K. Y. Kana, Y. M. Jang, "A Study o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53, no. 4, pp. 152-184, 2010.
- [18] M. H. Park,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Life Adaptation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ith a Focus on Parameters of Social Outlook", *Journal of Culture Industry*, vol. 10, no. 1, pp. 97-123, 2015.
- [19]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7th,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6.
- [20] K. M. Yang, J. K. Jung, "A Study on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to adolescents for Social Integr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8.
- [21] H. W. Kwon, "(A) Study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4.
- [22] Block, J.,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23] S. K. Yu, H. W. S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 [24] Armsden, G. C., Greenberg, M. 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pp. 427-454, 1987.
DOI: <https://doi.org/10.1007/BF02202939>
- [25] B. R. Ba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1 -Principles and Practice-* Seoul:Chungnam;2014.
- [26] A. S. Park, "Ecosystemic Factors that Affect the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the Youth",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2, no. 1, pp. 93-106, 2017.
DOI: <http://doi.org/10.21097/ksw.2017.02.12.1.93>
- [27] M. K. Jung,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lf-Resilience on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11, pp. 137-162, 2015.
- [28] J. H. Koo, "The Grade Difference in Community Spirit

-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47, no. 1, pp. 1-24, 2015.
- [29] B. E. Seo, H. M. Jo, M. Y. Kim,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vol. 19, pp. 179-207, 2015.
DOI: <https://doi.org/10.15400/mccs.2015.08.19.179>
- [30] G. Y. Kang, Y. M. Jang, “A Study o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0, no. 1, pp. 97-123, 2013.
- [31] O. H. Ahn, S. J. Jang, S. H. Ki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s to Improve Multicultur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1, no. 4, pp. 253-265, 2016.
DOI: <http://doi.org/10.21097/ksw.2016.11.11.4.253>
-

이 하 나(Ha-na Lee)

[종신회원]



- 2013년 8월 : 강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강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아동간호학